

단풍철 등산 추락·낙상 속출...‘산악사고 주의보’

단풍이 물들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족과 조난, 체력 저하에 따른 산악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발을 헛디뎠다 추락하거나 길을 잃는 사고는 물론, 산행 중 체력 저하와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등산사고는 775건, 전남은 1758건으로 모두 25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을철인 9~11월 사고는 광주 240건, 전남 503건 등 743건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등산사고 10건 중 3건가량이 가을철에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2023년 273건, 2024년 287건, 지난해 215건의 등산사고

가 발생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713건, 594건, 45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광주에서는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뎠는 실족 사고가 274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구조된 1360명 가운데 507명(37.2%)이 길을 잃거나 고립되는 등 일반 조난으로 구조돼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실제 가을 산행 중 구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6일 낮 12시50분께 진도군 지산면의 한 산에서는 스텐트 시술 이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산행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구조됐다. 당시 구조에는 소방헬기가 투입됐다.

전남광주 3년간 2533건 발생...10월 인명피해 집중 소방, 산악 구조훈련 강화...“무리한 산행 피해야”

지난달 20일 낮 12시44분께 함평군 불갑산 정상 인근에서는 50대 등산객이 4m 아래 산비탈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같은 달 30일 오후 4시20분께 무등산 용추폭포 인근에서는 체력이 떨어진 학생 8명이 조난돼 구조를 요청했다. 지난 4일에는 장흥군 관산읍에서 52세 여성이 하산 도중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산을 내려왔다.

전국적으로도 가을철 산악사고 위험은 두드러진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등산사고는 모두 2만8624건으로,

이 가운데 10월에만 3542건이 발생해 연중 가장 많았다. 10월 인명피해도 1107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실족이 844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7073건(25%), 지병 등 신체질환 4508건(16%) 순이었다. 발을 헛디뎠는 사고뿐 아니라 길을 잃거나 산행 중 건강 이상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사전 준비와 무리하지 않는 산행이 중요하다.

소방당국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출발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자신의 체력과 등산로 난이도, 기상 상황을 고려해 산행 계획을 세우고 예상 소요시간과 하산 경로, 일몰 시각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나 위험한 셋길은 피해야 한다. 산행 경험이 적거나 체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일행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도 가을철 산악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 정비와 구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광주권역소방본부는 무등산과 금강산, 제석산, 본적산, 삼각산, 매곡산, 한새봉, 운암산, 어등산, 용진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 10곳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과 산악위치표지판을 정비·보강하고 있

다. 산악안전 캠페인과 산악구조훈련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권역소방본부는 각 소방서별로 지역 산악 지형에 맞춘 인명구조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 첫째 주에는 부분부 주관으로 협조한 산악 지형에서 활용할 고난도 구조기법을 익히고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합동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을철 산악사고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산행 전 충분히 몸을 풀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국가지원번호를 확인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행복가득 집밥 반찬교실 취약계층의 식생활 자립 지원을 위해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쿠킹스튜디오에서 열린 ‘행복가득 집밥 반찬교실’에 참여한 홀몸 어르신들이 봉사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경찰 ‘착!한 운전 단속’ 544건 적발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88.4%...연말까지 집중단속

광주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사용을 집중 단속한 결과, 시행 2주 만에 544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은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착!한 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결과 안전띠 미착용이 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 189건, 방향 지시등 미점등 63건 순이었다.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은 모두 481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8.4%를 차지했다.

최근 증가하는 고령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보행자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같은 기간 122건을 적발했다.

특히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시간대와 장소에 교통순찰대와 암행순찰대를 투입해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사용을 일상적인 운전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보행자 교통법규 위반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광주 최대 66.5mm 집중호우...침수피해 25건

나주·여수 등 시간당 60mm 폭우...인명피해는 없어

한밤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시간당 최대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남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나주 66.5mm, 여수 백야 65mm, 고흥 포두 54.5mm, 화산 50.0mm, 목포 40.2mm, 광주 22.6mm 등을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신안 비금 62.0

mm, 나주 61.5mm, 여수 백야 52.5mm, 해남 땅끝 36.5mm, 고흥 포두 34.5mm, 완도 보길도 30.0mm, 목포 27.7mm 등으로 집계됐다.

전날 진도와 나주, 해남 등을 시작으로 확대 발효된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전 0시 30분까지 모두 해제됐다.

전남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 당국은 배수 작업과 안전 조치에 나섰으며, 경찰은 침수 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전날 오후 8시56분께 순천시 조례동에

서는 도로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들은 장비를 동원해 배수로를 정비했고, 경찰은 차량 진출입을 통제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화순군 능주면 지석천 1교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주택 침수 신고도 이어졌다. 전날 오후 7시44분께 영암군 금정면에서, 오후 6시 20분께 무안군 일로읍에서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호우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25건으로, 도로 침수 23건과 주택 침수 2건이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회생법원, 영무토건 회생계획 인가

전남광주 지역 중견 건설업체 영무토건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신고된 자산보다 채권 규모가 크게 웃도는 가운데 향후 채무 변제와 사업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법원장 김성주)는 ㈜영무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가 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영무토건의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

을 포함해 모두 343명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신고된 자산은 445억원인 반면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한 채권액은 6393억원에 달했다.

채권액에는 아직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발생 보증채권과 구상채권도 포함됐다. 관련 규모는 약 4600억원으로, 향후 실제 채권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회생채권 등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